

# “북한 지역 문화재 관리 민관 힘모아야”

## 최광식 교수, 문화재청 ‘남북문화재 협력’ 세미나서 주장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문화재 협력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그 노력에는 불교 문화재 교류 또한 포함된다.”

남북의 문화재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장)는 3월 28일 문화재청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문화재 협력’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류 중 문화재 교류를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남북 분단이 70년을 바라보며 역사 인식 차이를 문화재와 관련된 인식도 많은 이질성을 갖고 있다”며 “남북이 고구려 및 발해 유적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진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북 교류가 단절 됐던 때에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을 주제로 교류가 진행됐다”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백년대계를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강산 신계사 복원, 벤치마킹해야

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은 2004년 진행된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최초의 고고분야 교류사업

의 시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진행에 대한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고연구실장은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모두 6차례 걸쳐 진행됐는데, 지표, 시굴, 발굴, 복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화유적의 조사와 복원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 역사 인식 극복에 문화재 큰 힘

#### 통일 원동력으로 자리할 것

####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모델

#### 남북문화재 관리 기구 창설도 주장

이 고고연구실장은 “남북 학자와 전문가들이 ‘문화유적’이란 통일 대상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사와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된다”며 “다만 교류협력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남북 양측 합의를 통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가 문화재청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북한 문화재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 실장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당분간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따라서 예산과 인력 문제에 있어 사업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남북문화재협력추진협의회 구성 추진

정태현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문화재 협력의 단계별 과제’에서 정부와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남북 문화재 협력은 사업 성과

나 경제적 이익이 즉각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기금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문화재 보호관리에 지원되는 비율을 확대하고, 북한 문화재 관련 DB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남북연합기 등 각 시기에 맞춰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을 대신해 남한이 전면에서 민족공동자산인 북한 문화재를 복원관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 금강대·섬서사범대와 국제학술대회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단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와 3월 21~22일 섬서사범대 연타(雁塔)캠퍼스에서 종교와 역사의 교차점,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양대학 교류협정시 섬서사범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협의사항 진행이며, 실크로드와 함께 서역지방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불교의 수용과 변용의 단초 등 연구영역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 섬서사범대 서북민족연구센터는 서역(西域)으로 불리는 지역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 연구하는 중국 대표 국제연구소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의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불교’ 기조발제에 이어 허남걸 동국대 교수, 황승일 동국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교수, 최은영 금강대 HK교수 등이 발표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불교를 탐구하는 여정은 동아시아 불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동아시아 불교를 낳은 산통의 공간인 실크로드에서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실크로드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학술대회 결과물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특집호에 실릴 예정이며, 연구소 내부에서는 학술대회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 제1회 총지학술상에 서주희·박재용 씨

한국명상상담학회(회장 인경)는 3월 26일 제1회 총지학술상 수상자 선정자를 발표했다.

제1회 총지학술상 논문부문 수상자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주희 씨의 ‘알아차림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와 동국대 박재용 씨의 ‘오종유식관의 수행적 특징과 명상프로그램의 가능성

모색’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인 학술상은 선정하지 못했다.

서주희 씨 논문은 알아차림 명상의 효과를 다양한 상황에서 연구한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박재용 씨 논문은 유식불교 수행법의 현대적 응용 가능성을 모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모논문에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 “영성 트렌드 불교계 선제적 접근 필요”

##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인도철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유행하는 영성은 기독교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실체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영성이 문화로 성장하고 있음은 정신문화에 대한 갈구가 큼을 반증한다. 불교 내에 영성 개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등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불성과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 불교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와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가) 3월 28일 개최한 ‘불성(佛性)은 영성(靈性)인가’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불성과 영성의 공통·차이점과 함께 불교계의 대응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날 하유진 금강대 교수는 ‘불성과 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성 개념은 상대자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연인불성’이다”며 “성불의 과정은 홀로하는 고독한 행위가

아니며, 선한 행위를 주고 받는 소통과 교감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열반경〉에서 나타난 일체성불설은 성불에 대한 관용적·포용적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의 영성 개념에 부합하는 불교의 모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교수는 “〈열반경〉의 불성론은 불성개념에서 더 나가 종교적 수행론을 더한 구원론적 성격의 띠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현대 영성 개념의 취지와도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태승 위덕대 교수는 후기중관사상에 나타나는 공성의 개념과 불성, 영성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교수는 “연기의 사유 끝이 공성으로 전개된다. 불성, 영성, 여래장, 법신, 무분별, 로고스, 창조자, 본질 등등 다양하게 표현된 말들은 승의 경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극의 경계를 여러 언설로

### 영성과 불성은 연기성에서 같아

#### 진리의 경계 표현 위한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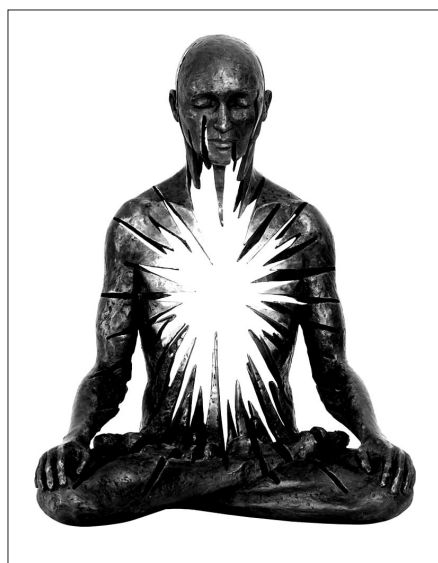
#### 초화학적 연구로 트렌드 주도해야

표현하면 그 개념의 속성을 추구하는 모습에 빠지게 된다. 공성과 불성의 경계는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만 사유되고 체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서울대학원대 교수는 영성의 바람에 대해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창조적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우리는 초화학적 공부와 연구,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성이 문화로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촌 삶에서 정신적 영역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예기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영성 탐구에 있어 스스로 수행과 탐구를 해가야 한다는 입장은 불교에서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연기와



불교조각가 'Sukhi Barber'의 'Radiance(빛)'

무아 등 다양한 면모들 사이에 현상학적, 해석학적 움직임을 함께 검토해 영성·초월·통합 이론도 정면으로 공부하고 대등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보조지눌 스님, 수좌들과 법거랑 했다”

〈보조전서〉 속에 등장하는 고승들을 조사해 보조지눌 스님이 교유한 고승들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3월 22일 보조사상연구원이 서울 법연사에서 개최한 제106차 정기월례학술대회에서 ‘보조지눌의 교유 고승’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눌 스님은 혜능과 영가, 허백과 종필, 영

평과 대혜 스님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사굴산문 종취 스님의 문하로 출가한 이래 득재 등 수좌스님들과 법거랑을 했다. 또 진각해심스님을 비롯해 스님의 제자였던 정선, 정해결사의 무대를 옮기기 위해 송광산 김상사 터를 발견한 수우, 책 간행과 유품을 담당했던 충담스님 등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선사들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추가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24일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와 경주 남고루(사적 제17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해당 유적과 연결한 구역을 사적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주 사천왕사지는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된 문화재지정구역은 경주 남산

(狼山)과 연계한 신라 유적의 밀집지역으로 사천왕사지의 보호와 사역 규모 확인 등을 위해 새롭게 편입됐다.

경주 남고루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제방, 읍성 등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1993년 발굴조사를 통해 토루(土壘, 흙으로 만든 보루)의 흔적과 석축벽이 발견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진로·진학 상담

##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안내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 인재 양성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 미래예측학 박사
- ◇ 저서 : 규명 1,2,3권 (한솔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 개인 지도 : 입문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 수업 일 : 매주 화·목요일 오전반 10시부터 ~ 오후반 6시부터 ~

- 명리학의 심리분석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명문대 재학생 1,200명의 응답 분석 ←
- 학생이 방문하여 설문자료에 응답시 즉시, 계열과 학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진로적성상담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 제 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자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14년 3월 중

### ◆ 개강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